잘 맞는 옷과 깃털 같은 삶

(마11:25-30)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잘 맞는 옷과 깃털 같은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잘 맞는 옷 입고 깃털 같이 가볍게 살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목이지요.

일본의 여성잡지 편집장을 지내시고 스타일과 여성들의 화장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런 업계에서 고문처럼 일하시는 '사이토 가오르'라고 하는 여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방면의 여러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중에서 '옷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일과 사랑을 쟁취하는 스타일 비법'입니다.
요즘 성형이 이슈가 되고,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지대한 관심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일과 사랑을 쟁취하는 스타일 비법'은 아주 매력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습관을 바로잡고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고 스타일을 내면서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직장에서 상사와 면담을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또, 처음 소개팅에 나갈 때와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중간에 입는 옷, 프로포즈가 제기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입는 옷,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얼굴이 강아지 형이라고 한다면 60년대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발랄한 옷을 입어야 하고, 고양이 상일 때는 최신의 유행 트랜드를 따라가는 현대적인 감각의 옷을 입고 패션의 주도적인 스타일로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할 때는 검은색의 옷이 최고랍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풍기는 색깔의 냄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부인이 남편을 잃고 검은색 옷을 입고 지내는 가운데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고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로울 때 그 마음을 파고드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은밀한 금단의 향기가 풍기는 것이 검은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남자 앞에 나타나면 남자들은 순간에 벌써 이러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여자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분의 결론은 어떻게 입는 것이 예쁘게 입는 것이냐 하면 깔끔하게 입는 것,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옷을 예쁘게 입는다는 게 뭐냐? 깔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내 멍에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주의적인 분위기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유대주의적 분위기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할 때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한 10분의 1을 바치고, 양도 좋은 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모든 생활을 규정하는 율법, 이게 무거운 짐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 온 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할 때 ‘쉽고’라는 단어가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소도 멍에를 멜 때 소의 목의 체형과 잘 맞아야지 그 멍에를 메고 어떤 짐이든 지기도 하고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멍에를 멘 소의 목 부분이 까이고 소가 불편해 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쉬게 해주신다고 오라고 초청은 하셨지만 쉬게 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일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다른 멍에를 메게 해주신다는 것이므로…
다른 멍에를 메고 다른 짐을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얘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과 멍에는 그냥 종교적인 멍에와 종교적인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포함한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삶 전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멍에요, 감당해낼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짐을 지면 삶 전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시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의 이 짐 하나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영역에서만 진다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너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멍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다 멍에예요.
직장인입니까, 직장인이라는 게 다 멍에예요.
아빠로서 아빠라는 멍에를 지고 있을 때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하고 아내와 자식, 또 부모님이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충당해야 하는

짐이 있어요, 가족부양의 짐이 있지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조를 하고 자식을 기르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장이면 부장, 과장이면 과장, 대리면 대리대로 멍에가 메어지면 그 멍에를 머리에 메고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내 삶에 등장하기 전에 내게 메고 있는 멍에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만이 내게 잘 맞는 멍에라는 얘깁니다.
잘 맞는 옷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내게 제일 잘 맞는 멍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노릇 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자식이 길러지지 않아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돼요, 무거워요.
잘된다면 무거워도 무거운지 모르겠지요? 잘 안돼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의 엄마라는 멍에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아빠노릇, 남편노릇으로서의 져야 될 짐이 있고, 아빠로서의 짐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잘 안돼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뭡니까?
우리에게 맞는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형을 하나님과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멍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인간의 체형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멍에가 옷이 맞질 않아요.
멍에와 옷이 거의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아빠라는 옷이 아빠라는 멍에가 맞질 않아요,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짐을 지려고 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짐을 지려고 하는데 잘 져 지지가 않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체형을 제일 잘 아십니다, 나도 잘 몰라요.

사이토 가오르가 쓴 '옷이 인생을 바꾼다'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아지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인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간과 함께 살고 늘 인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TV에서 정말 멋진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입은 옷과 걸치고 다니는 장식품들을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인간을 보고 같이 산다고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육십 억 인구 중에서 0.001% 도 안 되는 몇 사람을 걸어 놓고 그렇게 돼라고 얘기하고 그런 곳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그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내 옷, 신분, 내 멍에가 뭐냐?
죄인의 체형에 맞게 만들어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빌 게이츠를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리를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희 씨를 볼 것도 아니고, 반기문 유엔총장님을 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내게 잘 맞는 옷이 바로 그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난 아빠라는 멍에를 질 수 없어요, 엄마라는 멍에도 안 되고, 직장인이라는 멍에도 안 되고, 사업가, 학생이라는 멍에를 멜 수도 없어요.
그런 신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잡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토 가오르가 얘기한 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라든지, 직장상사에게 면접을 볼 때라든지, 애인을 만날 때… … 어떤 상황에든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우리의 체형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체형을 모르고 자꾸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업가로서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사업이 짐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는 옷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의 체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의 체형인 줄 알고 거기다 옷을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안 맞는 것 입고 있을 때 참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을 멋 내기 위해서 감수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 보면 바지 기장이 좀 길게 수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루를 걸을 때 바지 뒷단이 칙칙 걸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계단 모서리에 바지 뒷단이 자꾸 걸릴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또 살이 찌면서 예전에 입던 옷들이 작아져서 어깨가 불편한 그런 옷을 입고 고속버스를 타고 두어 시간 가야 될 일이 있다, 이거 말도 못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버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엄마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아빠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사업가, 가장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인데, 그게 내게는 맞지를 않아요, 죄인이라서.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그 옷을 다 입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허리가 35인치인 사람이 33짜리를 입고 배를 조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부드럽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다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 내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암 연구를 하는데, 간암 부분에서 권위자입니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에 자식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서울의대를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간암에 있어 선두주자인데 네 기준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입은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에게는 맞지를 않아요.
아빠가 입은 옷을 입으려면 아빠처럼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요, 그게 그 아이한테는 안 맞아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실 때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여느 아빠가 아들에게 제시하는 그 어떤 기준보다도 낮아요.
겸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세리와 창기, 아니면 공자와 석가모니나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오직 한 가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신분을 옷으로 입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가장 잘 맞는 옷,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멍에를 멜 때,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신분을 나의 신분으로 느끼게 될 때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분에 맞는 짐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돈이 없을 때도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업가라는 멍에를 메고 사업가의 옷을 입고 사업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짐을 수행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 앞에서도 내게 제일 잘 맞는 옷은 십자가라는 옷이에요.
죄인이라는 체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안 될 때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찾는 겁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자식 때문에 불만이 생길 때, 아빠라고 하는 멍에가 내게 맞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제일 잘 맞는 옷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식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자식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자식이 불만스러울 때,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이게 제일 잘 맞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다른 옷을 입게 합니다, '아니야, 좀 타이트하게 입어! 좀 길게 입어! 품은 좁을수록 멋져!' 자꾸 맞지 않는 멍에를 지우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그러면 되냐?' 여러분은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의 옷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내가 결혼하고 자식 낳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나 안 드리나 보시려고…
그게 뭐 잘못 되었습니까?
내게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식 주시고, 직장 주시고, 학교 주시고 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산다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깃털처럼.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를 바꾸라'
예를 들면 TV에서 시사매거진, PD수첩,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PD수첩 보는 것 봤어요? 시사 2580 보는 것 봤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의 문제,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 시사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만이 '내가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고 멍에를 메고 거기에 합당한 짐을 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돈이 없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떤 인생을 살고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것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오직 부모님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슈가 아니에요, 부모님만 있으면 주는 대로 먹게 돼있는 거고, -다들 자기의식이 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로 찾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들이 내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슈가 되지 않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금방 굶어죽게 되는 상황이 와도 이슈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천국이 주어지는데, 왜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의 체형이 죄인이라서 우리 체형에 맞는 멍에는 이 땅에 있는 신분 중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주신 십자가사건에서만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있고 멍에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통은 다 받으시고 이루신 사건을 쳐다보면서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내 체형에 맞는 옷을 내 마음에 입히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 앞에서…
그냥 내 체형에 맞는 십자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짐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떠받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더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라앉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맞는 멍에, 이게 쉬운 멍에예요.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
나는 체형이 죄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죄인의 체형에는 어떤 신분의 멍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맞는 거예요.
강아지가 인간과 함께 지낸다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괜히 딴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 보면서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 보면서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체형을 잊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한 모든 일의 다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하늘로 하늘로, 모든 삶에 대해 죽었으니까 내 마음이 갈 곳은 하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을 느끼고 천국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총체적으로 아버지로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고, 주시는 대로 받고, 앞에 놓여 진 과제를 그냥 내 속에서 주시는 힘을 따라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안 주시면 안하면 되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하시는 대로 많이 쓰고, 그렇게 살면 되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체형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저 모델이 바로 내게 제일 잘 맞는 것임을 기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 이 세상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람과 같이 사는 강아지가 자기도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체형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아빠, 엄마라는 멍에를 매며 온갖 세상에 있는 신분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체형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신분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 하나의 짐만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